

# 21세기 한국인의 역사인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 영 우

## I. 역사를 바라보는 눈; 객관성과 주관성의 충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역사인식 또는 사관(史觀)으로 부른다. 사관은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기 쉽고 객관성을 잃으면 거짓된 역사를 가지게 되어 해로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관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을 때에는 실천성이 강한 사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의 권력체제 유지를 절실하게 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권력체제의 변화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사관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 사관은 강한 이데올로기 성향을 갖게 되고, 그럴수록 실천성은 강하지만 역사의 진실과 거리가 있는 허상의 역사를 만들기 쉽다.

역사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바로 시대상황의 절박성과 사관의 차이에 비롯된다. 사관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정치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지만, 역사의 힘을 빌리면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관의 힘을 빌린다. 그러나 그 사관이 만일 역사의 진실을 크게 외면할 경우에는 현실의 실천도 언젠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실천성이 강한 사람보다는 정치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허심탄회하게 볼 수 있는 학문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관과 거리를 둔 객관적인 연구는 예기치 않은 새로운 지혜를 발견함으로써 기존 사관이나 이데올로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기여하여 미래를 한층 밝게 인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객관성이 중요하다더라도 현실의 과제를 전혀 외면만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객관성과 주관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역사의 진실에도 가깝고, 새로운 형태의 교훈과 실천성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II. 20세기를 지배한 사관의 문제점

### 1. 민족주의 사관의 빛과 그늘

지난 20세기 100년간 우리 시대를 풍미한 사관은 크게 민족주의 사관, 유물론적 계급사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발전사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체사관을 내걸고 역사를 해석해 왔다. 이제 그 장단점을 검토하고 미래의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민족주의 사관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내세운 식민주의적 사관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필요성에서 발생했다.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은 한국사의 주체성과 발전성을 부정하여 한국인의 열등의식을 부추기고,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도 불순하고 역사의 진실과도 거리가 멀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이런 사관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자학적인 열등의식에 빠지고, 한국사를 논할 때에는 의례 나쁜 점을 지적하는데 열을 올리고, 또 그렇게 말해야 지식인다운 역사의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풍조가 있었다.

식민사관은 우선 그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급선무로 인식되었다. 이때 선택된 사관이 민족주의 사관이었다. 대한제국 말기 대중교도(大倮教徒)들이 이런 사관의 첫 봉화를 들었는데, 그 요지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동이족(東夷族)의 여러 종족들을 똑같은 핏줄기의 단일민족(배달겨레)으로 해석하고, 이들이 믿었던 무교(巫敎)를 대중교, 낭가사상(郎家思想), 신교(神敎), 불함문화(弗咸文化) 등으로 부르면서 애국적이고 자주적인 고급종교로 해석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이런 역사해석을 가지고 독립정신을 부양하는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 김교헌(金敎獻), 신채호(申采浩), 박은식(朴殷植) 등의 민족주의 사학이 그것이다.

한국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배달겨레가 세운 고조선은 중국의 동북지방과 만주 및 한반도를 모두 아우르는 대제국이 되고, 그 뒤에 일어난 요(遼), 금(金), 원(元), 청(淸) 나라까지도 한국사에 포함되어 그 영토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중심지가 만주가 되며, 그 문화가 세계 문명권 가운데 하나의 중심지로 인식되었다. 이런 자랑스런 역사인식이 독립운동가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고, 잃어버린 만주의 고토(故土)를 수복하기 위해 이곳에 대한 식민사업이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성이 강한 민족주의 사관은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 동이족을 모두 같은 핏줄기의 단일민족으로 해석한 것이 사실에

어긋난다. 한국인은 수많은 동이족 집단의 한 갈래에 지나지 않고, 동이족이 세운 요, 금, 원, 청은 문화적 뿌리는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고 가장 치열하게 한반도를 침략한 적국들이었다.

또 우리의 적인 일본도 원래 한국의 이주민이 세운 분국(分國)의 후손들이므로 그들도 배 달겨레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신도문화(神道文化)도 우리의 대종교와 같은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런 생각을 역으로 이용하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내세워 한국 강점을 정당화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강요했다. 불함문화론을 내세운 최남선(崔南善)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것은 신도를 불함문화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민족주의 사관의 또 하나의 약점은 고대의 무교(巫敎)를 지나치게 미화한 나머지 유교문화를 비주체적인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매도하고, 유교가 지배한 조선시대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고대사만 자랑스럽고 그 뒤의 역사는 어두운 역사로 후퇴한 셈이다. 이런 인식은 결과적으로 식민사관이 강조한 한국사의 정체성(停滯性)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유교문화가 한국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양쪽이 모두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밖에 민족주의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어서 강자인 일본이 약자인 한국을 강점한 제국주의도 힘의 논리로 보면 긍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대 이후에는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수정하여 국제적이고 민주적인 민족주의로 선회했는데, 이런 이론을 내세운 인물이 민세 안재홍(民世 安在鴻)의 신민족주의(新民族主義)다. 그러나 안재홍이나 그와 비슷한 사관을 내세운 남창 손진태(南倉 孫晉泰) 교수 등이 광복 후 북으로 납치되어 남한에서는 그 맥이 끊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환단고기』(桓檀古記) 등 국수적 민족주의 역사책들이 나돌고, 이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III.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의 허상

한국에서 유물론적 계급사관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는 1920년대의 백남운(白南雲)이었다. 그 뒤로 김석형, 박시형 등이 나와 이를 계승하다가 북으로 올라가 북한 역사학의 기초를 놓았다. 계급사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 사관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열악했던 노농계급의 각성을 촉구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유도하는 순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초기에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광복 후에는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계급사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경제가 부정되면서 경제가 후퇴하고, 권력유지에 필요한 이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권력세습과 수령의 1인독재를 옹호하는 정치이론이 유물사관에는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이른바 주체사상과 주체사관이다. 그것은 수령을 신격화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절대복종과 수령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고, 한국사에 있어서 북한 땅에서 건설된 고구려를 정통으로 내세우는 역사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역사해석의 잣대를 수령의 교시와 지적만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1990년대 이후로 북한은 주체사상에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보태어 위대한 김일성을 수령으로 모신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선전했으며, 김일성의 신성한 백두혈통은 대를 이어 세습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서 주민을 세뇌시켰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오직 수령의 독재와 세습을 통해 인민을 통제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관이 보편적 가치를 지닐 수 없음을 명백하다.

고구려정통을 내세우는 북한의 행보는 실제로 고구려를 많이 닮았다. 선군정치를 내세워 호전적이고 공포적인 병영국가를 만들고,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대결구도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가는 모습이 그러하다. 그러나 고구려가 망한 원인이 중국과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다가 국력이 쇠약해지고 민심을 잃은 그 호전성에 있었다고 보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金富軾)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구려 말기 연개소문의 실정(失政)이 그렇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1979년 덩소핑(鄧小平)이 등장하여 저 유명한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내걸고 실용주의적 시장경제를 접합시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원래 유교국가의 전통은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공개념(公概念)을 절충한 형태를 지켜 왔는데, 중국은 그러한 전통을 되살려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을 세워 놓았다. 북한이 사는 길도 바로 중국식을 따르는 것이 전통을 살리는 주체노선이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계급사관의 약점은 이미 교조주의를 따르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정권이 1980년대에 일조에 몰락한 데서도 드러났지만,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로 간다는 역사해석의 틀도 서구 역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서양과 전혀 다른 사회를 구성해 온 동양사에는 맞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서양의 노예제나 봉건제는 근본적으로 상업문화에 뿌리를 둔 백인과 농업문화의 유색인종 사이의 인종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고, 자본주의도 백인이 유색인종을 정복하면서 발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중국이나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역사적으로 없는 자급자족적 농

업국가였으며, 정복사업도 문화와 인종이 크게 다르지 않은 종족 내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구적 형태의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비록 우파의 시각에서 그런 틀을 받아들여 한국사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서구적 형태의 역사를 걸어가면 역사의 진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진적이라고 보는 것은 서구인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백인의 역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는지는 몰라도 유색인종에 대해 저지른 죄악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IV. 자유민주주의 발전사관의 명암

근현대 서구인들이 만든 사관은 매우 다양하여 이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번거롭다. 하지만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파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과, 비록 유물론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다소 좌파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동양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론을 세운 사람은 거의 없고, 동양사회의 특성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동양사회가 서구사회에 비해 미숙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단 경제상황뿐 아니라 근대 서양이 창출한 자유, 민주, 평등의 이념도 동양사회에서는 발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서구인들은 고대부터 오리엔트세계를 야만국으로 보던 오리엔탈리즘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의 유교문명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서양우월주의적 역사인식은 동서양을 통틀어 보편화되고 있었다.

그래도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문화의 장점을 소극적으로나마 찾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막스 베버(Max Weber)일 것이다. 그는 서양의 우월성을 자본주의에서 찾으면서 원죄(原罪)를 씻으려는 프로테스탄트의 소명의식(召命意識)이 직업에 대한 헌신을 가져오고 그것이 부를 축적하여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중국이 자본주의로 가지 못한 이유를 정통사상인 유교(儒敎)와 이단사상인 도교(道敎)의 약점에서 찾았다. 즉 유교는 부(富)를 천시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중시하여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여 많은 인구와 화폐경제를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유교가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교는 신비주의에 빠져 기술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베버는 중국이 교육을 중시하여 평민들이 교육을 통해 문인층[literati]으로 상승했고, 다시 문인층이 과거를 통해 관료층으로 상승했으며, 비교적 전문화된 관료제도를 운영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진일보한 동양관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베버는 중국이 서양의 봉토 봉건제(封土封建制)와 다른 가산관료제(家産官僚制) 사회로 보고, 여기서 봉록봉건제(俸祿

封建制)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정체된 사회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전국의 토지를 황제가 소유하여 이를 관료들에게 봉록으로 나누어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관료제도를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료들이 봉록으로 받은 땅을 사유화하여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무너진 봉건제로 이행하고, 다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 가산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 정체된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베버의 중국관은 한국사에도 해당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의 이론의 결정적인 약점은 유교가 지니고 있는 인문주의, 평화주의, 민본주의적 장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도교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왕조교체에 따른 사상적, 사회적 발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만든 여러 역사이론은 경청할 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인류학 및 사회학과 연계하여 나타난 아날학파, 미셸 푸코, 레비 스트로스, 그리고 이슬람 출신 학자 사이드(Said) 등의 이론에서 역사학이 지닌 권력의지의 측면, 문화의 장기지속성에 대한 발견, 문화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이 그러하다. 그보다 앞서 랑케가 주장한 역사주의나, 카아가 역사학의 본질로서 주장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 등도 모두 경청할 가치가 있는 이론들이다.

최근에 이르러 서방세계의 동양사상사 전공들 가운데에는 유교문명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자극을 받아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조선시대를 노예제사회나 봉건제사회로 보고, 일본인의 식민사관과 비슷한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유교문명권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의 경우, 한국인의 시각에서 독자적인 역사해석의 틀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경제사전공자 가운데에는 일제 식민사관과 비슷한 해석을 따르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일제의 근대화정책에 힘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중고교 교과서를 둘러싸고 좌우파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좌파나 우파나 마찬가지다.

유교문명권이 이미 후진국이 아닌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한 이 시점에서 보면,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사와 전통적 문화가치를 적극적으로 재발견하여 이를 이론화시킬 단계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양우월주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V. 20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한국을 비롯한 유교문명권이 근대에 들어와서 서양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유교문명권의 후진국이었던 일본에게까지 무릎을 꿇은 것은 결정적으로 과학기술문화의 후진성 때문이었다. 서양은 15세기 말 신흥로발견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18세기 후반기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와 군사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으며, 일본은 16세기 중엽부터 유럽과 직접 교류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문화를 받아들여 경제와 군사면에서 아시아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높은 교육열과 세련된 유교문명을 통해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적 신분이동을 활성화하여 일본보다 한층 앞선 정치문화를 운영해 왔으나 과학기술문화에서 서양이나 일본에 뒤진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저지른 죄악은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수치임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뒤진 한국과 중국이 20세기 후반기의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의 G2로 올라서고 머지 않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갖추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GDP 수준이 이미 세계 13위권을 오르내리고, 무역량은 이탈리아보다도 앞서서 세계 8위권에 진입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5천 달러를 넘어서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경제발전뿐 아니라 한국의 스포츠나 대중문화는 일본을 크게 앞지르고, 전 세계에 이른바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시시각각으로 세계화되고 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를 가상한다면 한국의 국력은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서방세계 및 일본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아시아평화를 증진시키는 안전핀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웃 일본은 국력에 있어서나 정신적으로나 아시아의 맹주의 지위를 급속도로 잃어가고 있어, 머지 않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밀려 세계 7~8위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최근 20년의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극우보수정권이 잇달아 등장하여 평화헌법을 바꾸고 군사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위협하게 보는 이유는 과거 아시아침략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나서는 그릇된 역사관 때문이다. 지금 일본의 행보는 100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일본의 행보가 이렇게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본 역사전통의 후진성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유교국가가 아니고 문학의 수단으로서만 유

교를 받아들였을 뿐 정치이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교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없고, 유교의 중요한 정치수단인 과거제도도 도입한 일이 없으며, 소수의 무사가문이 세습적으로 정치를 주도해 왔다. 일본인의 정신을 지배한 것은 배타적인 신도(神道)와 불교이고, 서양과 오래도록 교류하면서도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 귀신을 숭상하는 국수주의 전통이 강하고, 일반 서민들은 정치적 출세의 길이 막혀 자신의 직업에만 올인하여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

일본인들이 장인정신이 발달하고, 예의바르고 청결하며, 지도자를 잘 따르는 풍습을 보면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풍습이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천년간 이어져 온 무사정치의 속성인 칼문화의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순치되어 복종하는 버릇이 생긴 까닭에 지배층에 대한 서민의 비판정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 아베정권이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언론매체가 밀어 주고,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일상적인 삶에서 보이는 일본인의 장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침체의 길을 걷고, 또 역사의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만큼 달성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대답은 한국의 유교문화전통과 서양의 과학기술문화가 접목된 것이 원동력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치열한 교육열, 성취욕, 근면성, 홍익인간의 공동체정신, 민본정치(民本政治)와 민국사상(民國思想), 문사철(文史哲)을 통합한 유교적 전인교육의 전통, 그리고 신바람의 역동적인 국민성 등이 바탕이 되어 서양 과학기술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성취욕은 공부만 잘하면 정승판서가 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과거제도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동체정신은 단군신화에 보이는 <홍익인간>(弘益人間)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동체정신은 상부상조의 나눔으로 나타나고, 나눔이 바로 <정>(情)이다. 한국인은 <정>이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고등지식인일수록 정이 부족해졌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다. 공동체정신이 있기에 의병운동으로 나라를 되찾고, IMF의 위기도 금모으기로 극복했으며, 기업도 공동체정신 속에서 발전했다.

한국인이 게으른 국민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면 왜 <빨리 빨리> 문화가 나타났는가? 지금 전세계에서 한국인처럼 부지런한 나라가 없다. 한국인은 현대에 와서 세분화된 학과의 울타리 속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수천년간 지배해온 유교는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학문을 지향했다. 그것이 장인정신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을 준다. 산업사회를



뛰어넘어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장인정신보다 이런 전인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분과학문의 장벽을 헐고 통합학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민본정치와 민국사상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 공익정치(公益政治)로 승화된 것으로, 한국적 민주정치를 의미한다. 인사제도의 공선(公選), 정책결정과정의 공론(公論), 왕실과 지도층의 검소한 생활,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감찰제도의 발달, 정치의 거울로서의 기록문화의 발달 등은 현대 민주국가가 따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 광복후 서양 민주주의를 배워서 비로소 민주주의를 알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 아니다. 왕조시대 선비들이 임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오늘의 민주정치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신바람의 역동성은 음양(陰陽)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지인(天地人)을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사랑하는 우주관에서 생긴 체질이다. 천지인의 생명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생명에너지가 약동하는데, 한국의 전통예술에는 그림, 노래, 춤, 조각,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하늘과 하나가 되려는 신바람을 담고 있다. 신바람은 하늘을 사랑하는 낙천성이고, 낙천성에서 춤과 노래와 해학을 즐긴다. 한국문화의 특징을 <한>(恨)이라고 본 것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에 만들어낸 오해이다. 오히려 낙천성과 신바람의 역동성이 전통문화의 특징이고, 그것을 담은 대중문화가 오늘날 <한류> 바람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 VI. 미래의 대안: 선비정신의 부활

한국문화의 핵심인 유교문화는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사상으로 보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유교를 만든 공자(孔子)는 산둥지방의 동이족(東夷族)이 세운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후손으로서 동이족의 아름다운 공동체문화와 주(周) 나라문화를 합쳐서 이론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자가 자신의 사상을 받아주지 않는 춘추시대의 정치에 실망하여 동이족이 세운 고조선으로 뗏목을 타고 이민오고 싶어 하면서 고조선을 <군자국>(君子國)으로 불렀다는 말이 『논어』에 보인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홍익인간> 문화를 <군자의 문화>로 보고, 고조선 및 산둥지방 동이족의 풍습을 보고 유교를 만든 것이다.

고조선문화는 무교(巫敎)이므로, 유교의 뿌리는 무교라 할 수 있고, 고조선문화를 계승한 한국인이 오히려 유교문화의 정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으로 중국인이 발전시킨 유학(儒學)을 재수입해 왔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유교적으로 살아왔다. 다만, 한국 유교는 중국 유교보다 더 무교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유무통합성(儒巫統合性)이 높으며, 불교도 이를 바탕으로 수용하여 토착화시켰다. 그래서 무

불유(巫佛儒)가 통합된 지식인층=지도자층을 <선비>라고 불렀다. 신라의 화랑도(花郎徒)나 고구려의 조의선인(皐衣仙人), 고려의 향도(香徒)와 두레[社] 등이 이에 속하고, 고려-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도 정주학(程朱學)을 배웠지만 체질적으로는 선비의 전통을 계승했다. 오늘날의 한국인도 선비의 DNA가 흐르고 있으며, 그래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다른 체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사를 보면 왕조의 수명이 500년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왕조의 장기지속성을 가능케 한 요인이 선비정신이다.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미국의 청교도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선비정신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층에는 선비정신이 무너져서 갖가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자성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갈려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감정적 적대감이 청산되지 못한 결과이다. 보수는 산업화에 기여했으나 민주주의를 억압한 잘못을 반성하고, 진보는 민주화에 기여했으나, 산업화의 공로가 없었으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피기 어려웠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감정대립에 빠져 있는 보수와 진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깨끗한 선비정신의 공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욕설이나 퍼붓는 정치세력은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사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표준적인 정서는 <홍익인간>, <동방예의지국>, <군자국>, <민본정치>의 전통을 이끌어온 선비정신의 부활을 갈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드라마 <정도전>이 사랑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사회가 양극화되면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부패의 연결고리 속에서 강자만이 자유와 부를 누리고 민주와 인권을 향유하면 사회통합은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통일을 주도할 동력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건전한 중산층이 사회저변에 두껍게 깔리고, 깨끗한 선비정신이 지도층에 체득화될 때 한국은 비로소 문화선진국이 될 수 있고, 그 선비정신이 고급문화의 한류가 되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선진국에서 문화대국으로 비약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역사적 과제가 될 것이다.